모가 난 것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대인이 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다름이 아니오라 부처님 뜻과 우리 큰스님 원력과 지원에 계시는 저희 스님들 힘을 빌려 광주에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그것을 짓는 것도요, 불사를 하게 되는 것도 정신계로는 일체 만 불(萬佛), 그 빈손들이 다 같이 더불어 해 주는 거고요, 산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내서 전부 같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다 만든 사람한테서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예요.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어느 회사가 양회를 했다 하면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벽돌을 했다 하면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나무를 켜서 말려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죠. 뭐, 물 불 다 들죠, 거기. 그러니까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없고,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혼자 한 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대신에 너희도 나한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쪽에서 준 것도 없고 이쪽에서 한 것도 없으니, 없는 가운데 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천세계의 묘법이 광대무변하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왜 하지를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했죠. 몸뚱이 속에 많은 생명들이, 보살들이 들어 있는데 보살들이 부처님하고 더불어 같이 있어요. 부처님하고 보살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처님 마음에서 한생각을 내면 보살들이 되죠. 지장이 되고, 관세음이 되고, 아촉이 되고, 미륵이 되고, 아미타가 되고, 그냥 한생각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자동적으로 수백억의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그 한마음 속에서 탄생을 해 가지고 그냥 모두 약사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그거는 부처님이 애써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자동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그 많은 생명들에게 한마음으로 항복을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질문자2(남) 저희가 관법(觀法)을 하고 있는데 '한마음!' 하고 '한마음 주인공' 또 '마음의 선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 · 최주현

큰스님 '이 귀신 망치야!' 이래도 그게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만 지극하게 했다면 '이 귀신 방귀씨야!' 이래도 되는 거죠. 허허허…. 사실은 그 이름이 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먹는 뜻이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놈 저놈 한다고 해서 "아휴, 부처님더러 어쩌면 '요놈, 저놈, 너' 이러느냐." 하는데 '너' 이러는 건 그냥 보통 말하듯이 '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중하게, 너무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도 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라고 그런 거지,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너라고 그런 거지 둘로 본다면 모셔야죠. 지극하게 모셔야 되지만, 둘로 보지 않는 까닭에 너라고 하는 것이니 너무나 이게, 그건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재(豫修齋)를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천도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우주 법계의 일체제불 불보살님 등, 귀신까지도 전체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데, 그때의 예수재라는 거와 또 조상님 천도했을 때의 그 마음 천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큰스님 예수재는요, 지금 우리 부모가 어디 먼 데를 간다고 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사십시오." 하고, 당장 가서 방을 얻고, 당장 가서 뭐, 쓸 때 쓰고 살 걸 사고 그래야 하니까, 또 뭐 사 잡숫고 싶은 거 사 잡숫고 이러라고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혼자 미국으로 보내 드린다면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고 사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얼른 쉽게 말해서, 노인네들이 금방 옷을 벗으면 혼이 벗어나서요, 지금 이런 공부를 한 분들이라면 죽어서도 감을 다 잡죠. 감만 잡는 게 아니라 인도자까지 생기죠. 이끌어 주는 인도자가 생기는데, 보살들이 이끌어 주죠.

그런데 공부를 영 모르고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는 혼백이 그냥 아는 집으로 떠돌거나,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 떠돌거나 그래서 "나는 저기 가야 할 텐데 배가 없어 못 가고 있다." 하는 혼백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전에 얘기했죠. 빠져 죽을까 봐 못 가고 타 죽을까 봐 못 건너간다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기 때문이죠. 모습이 있으니까 타 죽고, 모습이 있으니까 빠져 죽고, 그렇게 살던 습이 있어서 죽었는데도 모습이 없이 의식적인 마음만 있다는 걸 모르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떠돌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떠돌다가 잘 걸리면 좋지만…, 영혼들이 원래는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가다가, 단속을 하고 그래 가지고서 이름을 불러서 개개인을 차원대로 보내 주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떠도는 혼백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천도를 하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은 서너 번 해야 되는 집이 있고, '아, 저 집은 참 갸륵하다, 모두 잘들 지내고 잘들 살아서 저렇게 천도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도 자손들이 하겠다고 그럴 때는 '그러면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건 자손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 기리는 마음을 그대로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천도재를 안 해도 되는 집이 많아요. 덮어놓고 돈이나 벌고 그러려면야 뭐, 그저 누구나 다 그냥 하라고 하겠지만 난 어떤 땐 그래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러죠. "이다음에 벌어서 부모한테도 효도할 수 있을 때 그때 해." 그럽니다. "어려운 집에서 남의 돈 취해다가 하면 그거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부모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 하고 도로 줍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내 행동을 볼 때는 어려운 집이니까 조금 가져와서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집에서 몇십만 원이라는 것이 큰돈이죠. 어려운 집에선요.

질문자2(남) 그리고 국내외로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서는 뭐, 출가자도 있을 수 있고, 기복 불교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같이 이렇게 관법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국내 전체로 해서 천도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천도가 되는지, 아니면 불법만 믿어도 그냥 천도가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이게 이렇게 되죠. 내 마음의 주인을 가지고, 내 집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가는 주인이 있다면 금방 닥쳐오는 거를 팍 대치를 해서 그냥 탁 처리하는데, 기복으로 믿는 사람은 불러서 끌어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죽고 난 뒤에 오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지은 대로 산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질문자2(남) 결국은 천도가 된다고 볼 수 없겠는데요.

큰스님 그거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지금 여기 신도님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자기 주인을 믿느냐에 따라서, 집주인이 얼마나 대치를 해 주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질문자2(남) 네. 그리고 불(佛) · 법(法) · 승(僧) 삼보(三寶)에 귀의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중에 스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그 스님들 마음의 공(空)자리에 귀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발승 제자분인 그분들한테 귀의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대통령을 믿으면 비서도 믿듯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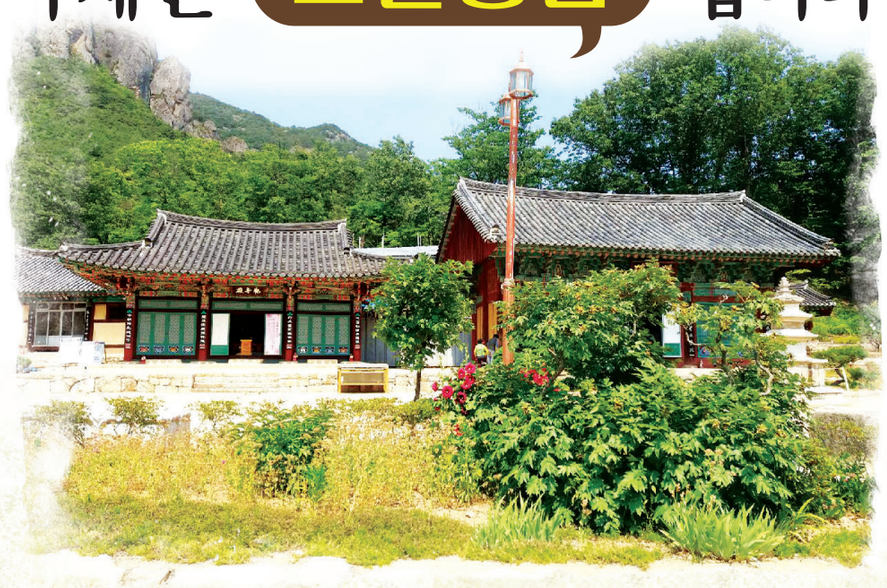
질문자2(남) 네.

큰스님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서가 이 법을

☞ A18면으로 계속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